

### 악성 위전정부 폐쇄 환자에서 stent 삽입에 의한 급성 췌장염 1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내과

김철현\*, 박종재, 이지연, 장윤정, 서연석, 김진용, 김재선, 박영태

서론: 악성 위장관 폐쇄의 고식적 치료로 금속 stent 삽입술은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드물게 stent 삽입 후 종양에 의한 췌관 압박으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연자들은 위선암에 의한 위전정부 폐쇄 환자에서 보존적 치료로 stent 삽입 후 발생한 급성 췌장염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례: 63세 남자가 2개월 전부터 지속된 상복부 통증과 간헐적인 구토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시 활력증후는 안정적이었고 복부에서 상복부 종물이 촉진되었다. 검사실 소견으로 혈액소 9.5 g/dL 외에 기타 제반 검사는 정상이었다. 내시경검사에서는 윤상의 궤양침윤성 암에 의한 위전정부 폐쇄가 관찰되었다. 복부 CT에서는 위 전정부 장벽 비후와 췌두부 침윤 및 다발성 림프절 종대가 관찰되었다. 위 전정부 폐쇄의 보존적 치료로 길이 7cm, 직경 18mm의 악성 급속관을 삽입하였다. Stent 삽입과 관련된 급성 합병증은 없었고 stent 내에서 관찰한 십이지장 제2부는 암의 침윤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다. 시술 다음날 환자는 경도의 심와부 동통을 호소하였으나 진통제 등의 보존적 치료로 다소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경도의 동통이 지속되고 복부팽만과 식후 구토가 재발되어 퇴원 7일째 다시 내원하였다. 혈청 lipase가 650 IU/L로 상승되어 stent 삽입으로 팽창된 십이지장 주위 암조직 혹은 림프선의 췌개구부 폐쇄에 의한 췌장염이 의심되었다. 추적 복부 CT에서는 췌두부의 미만성 종대 소견과 췌장주위 체액 저류, 십이지장 벽의 비후 소견이 관찰되었다. 추적내시경 검사에서는 stent의 일탈이나 폐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십이지장 제2부 점막의 심한 발적과 부종에 의한 폐쇄 소견이 관찰되었고 내시경의 통과가 곤란하여 췌장염에 의한 이차적 십이지장벽 비후 및 폐쇄로 생각되었다. 길이 9 cm, 직경 20 mm인 Wall stent를 십이지장 제3부 까지 삽입하였으나 계속적인 구토 및 발열이 지속되었고 입원 3주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색인단어: 악성 위전정부 폐쇄, stent, 급성 췌장염

### 거대 위 과오종에 의한 상부 위장관 출혈 1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내과, + 병리과

장윤정\*, 박종재, 김철현, 이지연, 서연석, 김진용, 김재선, 박영태, 이주한+, 김인선+

서론: 과오종은 기관을 구성하는 정상 조직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혼합 배열되어 증식하여 형성된 종물로 폐, 간, 신장, 비장 등 실질 기관에서 발생된 보고는 비교적 흔하나, 식도, 위, 십이지장, 직장 등 위장관에 발생된 예는 드물다. 이 중 위에서 발생한 과오종은 대부분 가혹성 용종증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하며, 대장용종증 없이 위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위에 발생한 과오종은 대부분 무증상이며 상부 위장관 출혈이나 내시경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저자 등은 상부 위장관 출혈로 내원한 용종 형태의 거대 위 과오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8세 남자로 하루 전부터 발생한 흑색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시 활력증후는 혈압 90/60 mmHg, 맥박수 124회/분으로 불안정하였고, 결막은 창백하였으며, 복부 신체검진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내원시 시행한 검사실 소견은 Hb 10.3 g/dL, WBC 14700/uL, platelet 310000/uL 이었고 그 외 다른 특이소견은 없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위 접합부부터 위저부에 걸쳐 10 cm 이상의 위 내강으로 돌출된 종양 및 그 중앙부에 궤양이 관찰되었고, 출혈의 흔적은 있었으나, 활동성 출혈은 없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에서 병변은 점막으로 덮여 있었고 크기는 13cm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종괴의 내부는 여러 개의 격막으로 나뉜 낭종성 병변이 혼합 에코를 보이고 있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여러 개의 격막으로 나뉜 낭종성 병변 내부에 고형 성분을 포함하고 내벽은 조영 증강을 보였다. 악성 위장관 간질종양 의심 하에 위 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종양은 육안적으로 크기가 13 X 12 cm 이고 표면은 비교적 매끄러우며 부분 궤양을 동반한 아마다 3형의 거대 용종형 종물 소견을 보였다. 조직 소견에서는 선양구조를 보이고 그 사이로 평활근 섬유와 지방 조직들이 증식되어 배열되어 있는 과오종에 합당하였다. 환자는 현재 수술 후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색인단어: 거대 과오종, 위, 용종형, 위장관 출혈